

“와인은 신이 내린 선물”... 조지아 와인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타라쉬 파파스쿠아 주한 조지아 대사가 '조지아 와인 페스티벌 2024'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와인21

“와인은 우리에게 시이자 종교이며, 일용할 양식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 우리의 고조선 건국이 기원전 2300년인데 조지아(옛 그루지야)는 기원전 6000년,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부터 포도를 경작해 와인을 만들었다. 고고학적 유물로 증명되면서 조지아는 인류 최초의 와인 생산지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만나보고 싶어도 막상 기회가 잘 닿지 않았던 게 조지아 와인인데 서울에서 조지아 와인 축제가 열렸다.

타라쉬 파파스쿠아 주한 조지아 대사는 지난달 열린 '조지아 와인 페스티벌 2024'에 참석해 “조지아는 500가지 넘

는 토착 품종을 바탕으로 놀랍도록 다양한 와인이 있다”며 “조지아인에게 와인은 단순한 상품 이상의 신성한 것으로 공동체 축하와 기쁨, 따뜻함을 나눌 때 함께하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조지아 와인 페스티벌이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지아 와인은 처음이니 일단 알아가

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크베브리다. 와인을 저장하고 숙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달걀 모양의 전통 항아리다. 우리에게 땅에 묻었던 김치독이 있다면 조지아에는 와인독(?)이 있었다. 놀랍게도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고, 크베브리를 이용해 와인을 만드는 양조법은 201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다. 어떤 첨가물도, 양조자의 개입도 필요 없다. 크베브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효가 일어난다. 씨 등 잔여물은 아래로 가라앉아 썩고, 위에는 맑은 와인이 익어간다. 조지아 와인이 다른 곳의 어떤 와인보다 고유의 개성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다. 크레브리로 양조한 와인은 와인 이름에도 크레브리를 명시한 경우가 많다.

다음은 와인을 만드는데 쓰이는 포도 품종이다. 와인의 발상지답게 무려 525종이 넘는 토착 품종이 있다. 이 가운데 상업적으로 와인 양조에 주로 쓰

이는 품종은 30종 안팎이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다. 이번엔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각각 대표품종 하나씩만 제대로 익혀보자.

레드와인 대표품종은 사페라비다. 진한 색에서 연상할 수 있듯 숙성 잠재력이 탁월하다. 재배 지역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날 시음한 '키베리오니 사페라비 2020'은 진한 루비색에 체리, 블랙베리 향이 올라온다. 깊은 풍미로 여운은 길지만 타닌이 많지 않아 레드와인이라도 편하게 마시기 좋다.

화이트와인 대표품종은 르카치텔리다. 산미를 살리면서도 탄탄한 맛을 낼 수 있는 품종이다.

'키베리오니 르카치텔리 2019'는 열은 벗겨낸 색인데 예상보다 무게감이 있는 화이트와인이었다. 신선한 과실향에 좋은 산미로 우리 음식 가운데 빈대떡 등 전류와 잘 어울린다.

현재 조지아 와인은 한국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조지아가 와인 수출의 전략적 지역으로 꼽은 7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조지아내셔널 와인 에이전시의 마케팅 담당자인 마리암 메트라벨리는 “한국의 조지아 와인 수입은 작년 42%나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8월 말 기준으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조지아는 한국과 경제협력을 한창 논의 중이다. 올해 말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다면 와인에 있어서는 큰 장벽인 세금이 낮아지면서 다양한 조지아 와인을 더 낮은 가격으로 맛볼 수 있게 된다. 칠레 와인도 FTA 체결을 계기로 수입이 크게 늘었다. 두 나라를 잇는 항공 직항 노선도 검토되고 있다.

조지아 와인의 마지막 잔을 비우기도 전에 이미 내년 계획이 세워졌다. 직항 비행기를 타고 '와인의 고향'에서 맛보든, 한국에서 싸고 다양해진 조지아 와인을 마시든 내년은 조지아 와인을 만나는 해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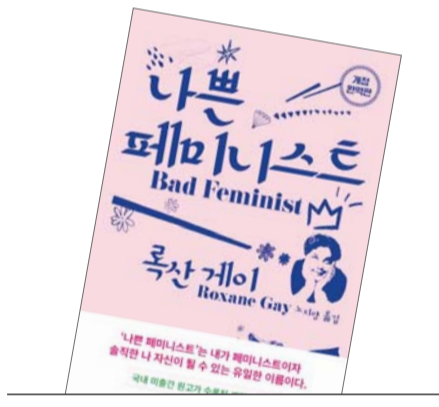
말 속에 깃든 편견

생활 반경 내에 눈엣가시인 남자가 하나 있다. 그에게 '공주X'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제 손으로 하는 것 하나 없이 늘 남을 시키려 들고,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의 말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누군가 저를 물심양면 도와줘도 전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서다. 아 그가 최악의 인간인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하기 싫은 일을 전부 남한테 떠맡긴다.

보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서 이름 대신 '공주X'이라는 멸칭을 하사했다. 한 가지 찝찝한 것은 그를 '공주X'이라고 부를 때마다 여성 혐오자가 된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 녀석을 '왕자X'이라고 불러주자니 어쩐지 배알이 풀린다. 일단 '왕자X'이란 닉네임은 '공주X'처럼 타격감이 없다. 또 전자엔 경멸스러운 느낌이 희미하며, 녀석은 너무나도 명칭해 자신을 저렇게 불러주면 외려 좋아할 것 같다.

언젠가 학교 앞을 지나갈 때 남자 고등학생 한 무리가 저들끼리 장난이랍시고 서로를 'X발 X아~. X신 같은 X.'라고 부르는 걸 본 적이 있다. 왜 저 사내 녀석들은 남자면서 동성 친구를 '놈'이 아닌 '넌'으로 일컫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 싫어하는 남자애를 공주X이라고 부르는 저 자신을 보면서 깨달았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깃든 여성 혐오 때문이란 것을.

우리는 왜 사회의 절반을 이루는 여성들을 몹시 싫어하고 미워하게 됐을까. 미국 사회에 페미니즘 열풍을 일으킨 문화비평가 룩산 게이는 저서 '나쁜 페미니스트'에서 그 혐오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음악, 영화, 문학에서 여성은 수시로 비하와 별시를 당한다”고.



나쁜 페미니스트
룩산 게이 지음/노지영 옮김/문학동네

래퍼 제이 지의 랩에는 'bitch(여성을 비하하는 속어)'가 쉽표나 마침표보다 더 자주 나오며, 방탄소년단 RM의 '농담'이라는 노래에는 “그래 난 최고의 여자, 갑질 / So X나게 잘해 갑질 / 아 근데 생각해보니 갑이었던 적 없네 / 갑 폐고 임이라 부를게, 임질”이란 가사가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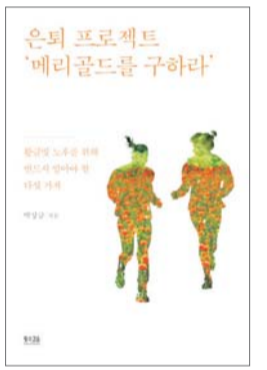
팝 음악이 너무나도 중독성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자신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책하던 룩산 게이는 '나쁜 페미니스트'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는 “나를 따라다닐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꼬리표를 환영한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엉망진창이니까. (중략) 완벽하려 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전부 옳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내가 믿는 것을 지지하고, 이 세상에 뭔가 도움될 만한 일을 하며 온전히 나 자신으로 남고 싶을 뿐이다”고 이야기한다. 모든 분야에서 성 평등을 지지하는 한 당시는 페미니스트가 맞다고 저자는 말한다. 448쪽. 1만8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은퇴 프로젝트 '메리골드를 구하라'

박상금 지음/황소걸음

책의 저자는 지난 13년간 직장인 은퇴 교육을 통해 퇴직자 2000여명을 상담하며 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해온 자타 공인 '은퇴 준비 전도사' 박상금이다. 배우자의 창업 실패로 노후에 파산 위기를 맞은 저자는 6년간 철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 끝에 위기를 극복하고 64세에 성공적으로 은퇴한다. 말의 힘을 믿는 그는 잿빛 노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기로 마음을 다잡고

꽃말이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인 메리골드를 필명 삼아 시인이 걸린 프로젝트를 수행하듯 성공적인 은퇴 전략을 세워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 은퇴 준비의 4가지 필수 요소인 사람(인간관계), 돈(노후 자금), 일(평생 현역),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노후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습관을 실천할 방법을 알려주는 책. 286쪽. 1만8000원.



정신병을 팝니다

제임스 데이비스 지음/이승연 옮김/사월의책

우울증으로 진료받는 사람은 한 해에만 100만명에 달하며,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하는 ADHD 치료제는 지난 5년간 처방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 각종 약물 처방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 수는 갈수록 늘어만 간다. 왜 우리의 정신 건강은 나아지는 커녕 점점 악화하기만 하는 걸까. 정신질환이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때 정신적 고통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은 눈앞에서 자취를 감춘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실업, 경쟁적 교육, 물질주의 세계관 등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데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고통을 개인화하고 의료화하며 상품화한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같은 상처와 아픔을 공유한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376쪽. 2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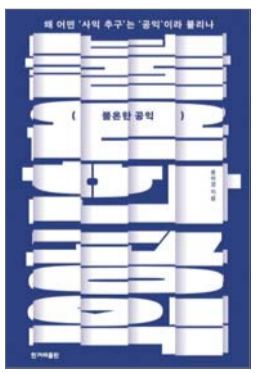


불온한 공익

류하경 지음/한겨레출판

수업권 침해해 이유로 고소당한 대학 내 청소 노동자, 코로나19 방역 위반으로 법정에서 선 집회 주최자, 시민의 통행 불편을 초래했다는 명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가. 최근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공익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왜 어떤 '사익 추구'는 의심 없이 '공익'으로 불리고, 누군가의 '사익 추구'

는 '과격할 때 쓰기'로 여겨질까. 지배 세력이 볼 때 그사의 추구가 정치·경제적으로 '위험하지 않아야' 비로소 공익이라 부르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인 건 아닐까. 책은 스킴미투 정보공개 청구, 경비 노동자 갑질 사망 사건, 삼성 최초 노조 설립 투쟁 등의 굵직한 갈등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의 개념을 훑어본다. 316쪽. 2만원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바이든, 선거 전까지 나오지 마”... ‘쓰레기’ 실언에 민주당 ‘부글’ /사진 뉴시스
▲ 러, 구글에 벌금 폭탄... ‘0’이 36개, 전 세계 GDP보다 많아

▲ 북한 “美·서방 러 위협 계속되면 불필요한 결정 내릴 것”
▲ 美 3분기 강력한 성장세에 고용지표도 굳건... 스물셋 굳하나?



▲ 유엔, “위안부 배상 계속 노력” 日 정부에 권고... ‘부부 동성’ 개정도 지적
▲ 하마스 “가자 영구 휴전 위한 모든 합의 등에 열려있어” /사진 뉴시스